

유비쿼터스 도시... 추진 동력 되살릴 수 없나

김 우 영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beladomo@cerik.re.kr

유비쿼터스 도시(이하 u-City)는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 당시의 정보통신부가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정보통신산업을 지목하고, 신규로 개발되는 수많은 정보통신 기술(이하 ICT) 상품을 적용하기 위한 장으로서 기획되었다. 또한, u-City는 그 이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도시에 관한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가 「u-City건설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였다.

사실상 u-City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이나 건설산업 및 각종 연관 산업들이 그간의 침체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소재라고 할 수 있다. u-City가 성공적으로 건설되고 그 새로운 도시에서 시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지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면, 이 새로운 산업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매우 큰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u-City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개발 주체들의 인식 '엇박자'

u-City라고 하는 상품은 기존 ICT 상품이나 건설 상품과는 그 특성이 매우 다르다. 이것은 ICT 상품도 아니고 건설 상품도 아닌 매우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상품이다. 따라서 이 상품을 개발하는 주체와 접근하는 방식이 기존과는 당연히 달랐어야 하는데, 당초 정보통신산업이나 건설산업의 모든 주체들이 이 상품을

대하는 관점은 기존의 다른 상품을 대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의 사업 수행 체계나 수익 확보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단순한 사업 외연의 확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정보통신산업은 개발된 신규 상품들을 적용할 수 있는 보다 확장된 장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건설산업은 도시나 단지 개발의 관점보다는 전기·통신 공종의 업무 확장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u-City 속의 새로운 u-서비스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신들의 보유 기술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업을 수주할 것인지에만 관심을 보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상품의 발주자인 지자체나 정부는 이것에 대하여 일부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 이 슈 진 단

다. u-City가 첨단 ICT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u-City 개발 전략, 즉 USP(Ubiquitous Strategy Plan)를 ICT 관련 전문 업체들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뒤에서 논하겠지만 매우 중대한 실수였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 u-City가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놓칠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 중심의 개발 전략 절실

정보통신업체가 u-City 건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시 개발과는 무관하게 최종적인 첨단 도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즉, 최종적인 공급자인 것이다. 도시 개발에 대한 전문성이나 개념이 없는 최종 공급자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상품에 근거해서 u-City의 개념을 정립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수요자인 지자체와 시민들의 편의이나 도시의 기능 구성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즉, 수요보다는 공급 중심의 논리로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ICT 그룹이 주체가 될 경우 당장에는 공급자 입장에서 유리한 시장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거대한 잠재 시장을 불모지화시킴으로써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u-City의 전략을 기획하는 것은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가 해야 할 일이다. 기본적으로는 도시의 발전 전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담당해야 하지만, 그 전문성이 약하다고 판단된다면 도시에 대해 잘 알면서 유비쿼터스화된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어떤 그룹이나 기관이 이를 수행했어야 했다.

이런 그룹이나 기관은 그동안 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기본 계획과 개발 계획을 담당해 온 기관들도 있지만, 유비쿼터스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면서 u-City의 개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좀 더 융합적이고 통섭적인 역량을 가진 주체가 필요하다. 그것은 도시 개발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산업, 건설산업, 사회·문화·경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기관이나 컨설팅 그룹이어야 했다. 당초 우리 정부가 기획했던 것처럼 u-City를 정보통신산업의 'playground'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요에 기반한 u-City 전략만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회·문화·경제 관점의 접근 필요

중요한 또 다른 패러다임은 u-City를 기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문화·경제의 관점에서 접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u-City와 관련된 주체들을 살펴보면 주로 정보통신이나 건설 분야의 사람들로서 모든 사안을 기술 중심으로 판단하는 주체들이다. 그러나 u-City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와 사업 관계들이 빚어내는 상호 연관성을 잘 이해할 때만 그 구현이 가능하다. 그간의 u-City의 주요한 실패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익 모델의 부재다. 이는 단순한 상품의 수익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들간의 이해를 얼마나 유효하게 풀어내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간의 USP에서 항상 제시된 서비스 중의 하나가 키오스크다. 이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으로서 매우 유익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 연관된 이해 당사자들이 매우 제한적인 서비스이다. 어떻게 보면 사회·문화·경제적인 복잡한 관계와 그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기술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편리한 서비스인 것이다.

오히려 유비쿼터스를 표방하지 않고 개발되었지만 사실상 u-서비스로서 개발된 뛰어난 사례가 서울시의

교통카드라고 할 수 있다. 키오스크는 당장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서비스지만, 교통카드는 사람들이 이것이 u-서비스라는 것을 인지조차 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이다. 유비쿼터스의 원래 뜻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상기하면 교통카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가장 적절한 u-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교통카드는 환승 할인이라는 서비스 때문에 지하철, 버스, 카드 사업자들 간에 일정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서울시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였기 때문에 최초로 지하철과 버스가 통합된 교통카드가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편의성이 높은 u-서비스는 이와 같이 그 이면에 이해 당사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렵고 차원이 높은 u-서비스라 할 수 있다. 비록 서울시의 담당자들이 이것이 u-서비스라는 인식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비스 자체가 유비쿼터스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3의 융합 조직이 선도해야

u-City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체

가 정보통신이나 건설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업역 중심의 사고에 갇혀 있는 주체로서는 각 분야의 융합을 제대로 이끌어내기 어렵다. 각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나름의 수익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는 u-City를 기획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포괄하는 별도의 주체로서 u-City를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그룹 또는 산업이 조직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u-City의 추진력은 이 융합 조직에 의하여 선도될 필요가 있으며, 전통적인 기존의 산업 분야는 지자체와 융합 조직에 의하여 계획된 u-City 개발 전략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행을 맡아야 한다.

수단보다는 목적의 발굴

우리는 u-City를 언급하면서 '건설-IT 융합'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용어를 무심결에 사용한다. 이런 사고는 u-City 개발의 수단인 건설과 IT를 중심에 두고 그것들로부터 u-City를 도출하는 사고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건설과 IT는 u-City 개발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이것이 u-City의 핵심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주하는 도시가 어떤 도

시여야 하며 그 안에 어떤 편리한 서비스 기능들을 담아내서 시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자체 행정을 효율화할 것인지를 도출해야 한다. 목적물인 u-City 자체의 목적과 특성을 먼저 분석하고 그에 맞는 수단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의 변화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변혁하는 것이고 업역에 묶여 있는 참여 주체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발 주체의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기술과 공급이 전부는 아니다

u-City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기술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수요보다는 공급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인 측면(신규 첨단 기술과 표준화 문제 등)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이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고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모든 기술자들의 관심사들이고 이는 눈에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u-City 구현과 관련하여 가시화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어서 해결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들은 모르고 지나가지만, 사실상 u-City의 향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현 시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CERIK